

“‘황금장갑’을 잡아라”



2019 KBO 골든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린 KIA 양현종·안치홍·김선빈·박찬호(왼쪽부터).



2019 KBO 골든글러브 후보 102명 발표...9일 시상식

KIA, 양현종·안치홍·김선빈 등 9명 배출

2019 프로야구 대미를 장식할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일 각 포지션 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골든글러브' 후보 102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 97명보다 5명이 증가한 102명으로, 역대 최대 후보 수를 기록했다.

KIA는 투수부문의 양현종을 비롯해 안치홍(2루수), 박찬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이창진·터커(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가 후보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투수부문 후보는 린드블럼·유희관·이영하·이용찬(이상 투산), 김상수·브리검·요키시·최원태(이상 키움), 김광현·문승원·박종훈·산체스·서진용·하재훈(이상 SK), 고우석·윌슨·차우찬·켈리(이상 LG), 구창모·루친스

키·원종현·이재학(이상 NC), 김민·배제성·알칸타라·쿠에바(이상 kt), 양현종·월랜드·터너(이상 KIA), 백정현·윤성환(이상 삼성), 서폴드·채드벨(이상 한화), 다익슨·레이리(이상 롯데) 등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35명이 선정됐다.

포수 부문은 박세혁(두산), 이재원(SK), 유강남(LG), 양의지(NC), 장성우(kt), 강민호(삼성), 최재훈(한화) 등 7명이 후보에 올랐다.

최형우(KIA), 페르난데스(두산), 유한준(kt), 김태균(한화), 이대호(롯데) 등 5명은 지명타자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린다.

1루수 부문에는 오재일(두산), 박병호(키움), 로맥(SK), 오테곤(kt), 러프(삼성) 등 5명이 기준을 충족했고, 2루수 부문은 정주현(LG), 박민우(NC), 박경수(kt), 안치홍(KIA), 김상수(삼성), 정은원(한화) 등 6명이 후보에 올랐다.

3루수 부문은 허경민(두산), 최정(SK), 김민

성(LG), 황재균(kt), 박찬호(KIA), 이원석(삼성), 송광민(한화) 등 7명, 유격수 부문은 김재호(두산), 김하성(키움), 김성현(SK), 오지환(LG), 심우준(kt) 김선빈(KIA), 이학주(삼성), 오선진(한화), 신본기(롯데) 등 9명이 경쟁한다.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 후보는 김재환·박건우·정수빈(이상 투산), 샌즈·이정후·임병욱(이상 키움), 김강민·노수광·한동민(이상 SK), 김현수·이천웅·이형중·채은성(이상 LG), 권희동·김성욱·이명기(이상 NC), 김민혁·로하스(이상 kt), 이창진·터커(이상 KIA), 구자욱·김현곤·박해민(이상 삼성), 장진혁·호잉(이상 한화), 민병현·손아섭·전준우(이상 롯데) 등 28명이다.

10개 구단 중 kt는 모든 부문에서 후보를 배출했으며, SK는 13명이 후보에 올라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KIA는 포수와 1루수 부문을 제외한 포지션에 9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10명의 주인공이 공개되는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5시15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리며 지상파 TV MBC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생중계된다. /박희중 기자



전남축구협회 U14대표팀이 지난달 28일 미국 전지훈련 출국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이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축구협회 U14대표팀, 美 LA서 전지훈련

“선진 축구 배우며 꿈 키운다”

전남축구협회 U14대표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지훈련에 들어갔다.

전남축구협회(회장 신정식)는 전남축구협회 U14 대표팀 32명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트레이닝 캠프는 김동근 장흥중 감독을 비롯해 모정일 목포제일중 감독, 김대륜 광양중 감독, 이영수 순천 매산중 감독, 임승범 영광FC GK코치 등 5명의 지도자와 순천 매산중 김찬서(FW), 목포제일중 김정래(GK) 등 전남지역 24명의 우수 선수가 참가했다.

전남축구협회는 2017년 프로축구팀들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첫 트레이닝 캠프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독일 브레멘에서 해외 우수 클럽팀들과의 평가전을 통해

선진 축구를 체험하는 등 매년 해외 트레이닝 캠프를 진행, 전남 청소년 축구 선수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LA 현지 전지훈련과 LA 갤럭시 유스팀을 비롯한 3차례의 평가전과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축구팀 LA 갤럭시 홈스타디움 투어,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람 등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과거 전남은 한국 축구 태극마크 산실이었다”며 “실제로 허정무·기성용·김태영·고종수·김영광·지동원 등 전남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전남 축구의 자긍심을 높여줬기에 이번 LA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도 전남대표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019광주시 전국장애인파크골프’ 열전

경남 우승·충남 준우승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광주 염주파크골프장에서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2019 광주시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한 대회에 전국에서 선수 및 임원·관계자 170여명이 참가해 열린 경쟁 속에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대회는 단체전(18홀) 3인1조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해 우승

자를 가렸다.

경기 결과 우승은 경남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충남에게 돌아갔다. 광주는 별도로 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기를 벌여 동구가 1등을 차지했다.

서용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회가 경쟁과 승패를 떠나 희망과 도전의 한마당이자, 우정과 화합의 축제로 치러짐으로써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체육 활성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손흥민, AFC ‘국제선수상’

3번째 수상...이강인 유망주상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27·토트넘)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연간 시상식에서 통산 3번째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았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이강인(18·발렌시아)과 정정용(50) 감독도 각각 유망주상과 남자 감독상의 주인공이 됐다.

손흥민은 지난 2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AFC 어워즈에서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국제선수상은 AFC 가맹국 선수로 자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서 뛰는 선수 중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에게 주는 상이다. 손흥민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상을 거머쥐었다.

올해 일본의 하세베 마코토(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이란의 사르다르 아즈문(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과 함께 후보에 오른 손흥민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맹활약하며 경쟁자들을 제쳤다.

올해 여름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을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인 골든볼을 거머쥔 이강인은 AFC 시상식에서도 ‘유망주상’으로 활약을 인정받았다.

앞서 한국 선수 중엔 이천수(2002년), 박주영(2004년), 기성용(2009년), 이승우(2017)가 AFC 올해의 유망주상을 탔다. 여자 선수로는 여민지(2010년)와 장슬기(2013년)가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이강인 등을 이끌고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일군 정정용 감독도 남자 감독상을 받아 한국 축구는 올해 시상식에서 후보에 오른 3명이 모두 수상하는 경사를 누렸다.

한국 감독이 AFC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건 2016년 전북 현대를 이끌던 최강희 감독이 남자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만이다. /연합뉴스



바르셀로나 포워드 리오넬 메시가 3일 프랑스 파리 샤를레 극장에서 열린 2019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뒤 그간 자신이 받은 6개의 트로피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메시, 6번째 발롱도르 수상 ‘호날두 넘었다’

손흥민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22위 올라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통산 6번째 발롱도르 수상자로 선정돼 ‘라 이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피르질 판데이크(리버풀)를 따돌리고 역대 최대 수상자로 우뚝 섰다.

메시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9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트로피를 차지했다.

프랑스 축구전문 잡지인 프랑스풋볼이 주관하는 발롱도르는 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1956년 처음 시작된 발롱도르는 올해 64회째로 메시는 개인 통산 6차례(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5년·2019년) 수상에 성공, 최대 수상 동률(5번)이던 호날두(2008년·2013년·2014년·2016년·2017년)를 따돌렸다.

특히 메시는 지난 9월 발표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19’에서도 호날두와 판데이크를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 메시에 이어 판데이크와 호날두가 남자 선수 부문 2-3위를 차지한 가운데 최종 후보 30인에 포함됐던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은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전남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선수상을 받은 데 이어 발롱도르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존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는 2007년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무드(2점)가 기록한 29위였다.

한국 선수로는 설기현(2002년)과 박지성(2005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후보에 오른 손흥민은 당당히 4표(4점)를 얻어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동시에 달성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열린 제24회 세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첫날 조별리그 B조 1차전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심해인이 슛을 날리고 있다. /국제핸드볼연맹 홈페이지

女핸드볼 “브라질도 잡았다”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 2승1무...결선 리그 진출 청신호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국 브라질까지 잡아 내며 순항을 이어갔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3일 일본 구마모토현 야마가 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세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나흘째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브라질을 33-27로 제압했다. 2승 1무가 된 한국은 6개 나라가 속한 B조에서 상위 3개국에 주는 결선 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을 키웠다.

우리나라는 대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2017년 대회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29-27로 제압했고 1일 전 통의 강호 덴마크를 상대로도 26-26 무

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상대 브라질은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경력이 있는 강팀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반 한때 4골 차 열세를 뒤집고 승리를 따냈다.

한국은 이날 류은희(파리92)와 신은주(인천시청)가 나란히 8골씩 넣었고 심해인 6골, 이미경(이상 부산시청공단) 5골 등으로 뒤를 받쳤다.

우리나라는 4일 같은 장소에서 호주와 조별리그 4차전을 치른다.

◇3일 전적

▲B조

한국(2승 1무) 33(16-14 17-13) 27 브라질(1무 2패) /연합뉴스